

연구논문

장서각 소장 유희 『시물명고』에 대하여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국어학 전공

hnhmoon@aks.ac.kr

I. 머리말

II. 『시물명고』의 서지와 장서각 소장본

III. 『시물명고』의 저술 목적

IV. 『시물명고』의 저술 체재

V. 『시물명고』의 저술 시기

VI. 『시물명고』의 저술 성격

VII. 맺는말

I. 머리말

『시물명고(詩物名考)』는 유희(1773~1837)가 詩(『詩經』)에 나오는 물명(物名)을 고찰하되, 특히 『시경언해(詩經諺解)』(1613)에 수록된 물명을 중심으로 자세히 주석을 베푼 책이다.¹ 원래 유희의 유고를 모아 편찬한 (100여 책 이상의) 『문통(文通)』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나, 현재 유희가 저술한 원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원본을 후대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만이 『문통』 권 5에 유희의 다른 저술들과 함께 실려 전한다. 그동안 유희의 후손 집안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5년 『문통』 현존본 등 서과 유희 관련 자료 일체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공식 기탁되면서 현재 장서각에서 보존 및 관리를 하고 있다.²

『시물명고』는 독자적 저술성이 두드러진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명고』에 가려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선학회(朝鮮學會, 1960~1961), 경문사(景文社, 1975)를 비롯하여 일찍부터 여러 가지 영인 자료가 활용된 『물명고』와 달리 『시물명고』는 2000년에 와서야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에서 출간하여 처음 영인 자료가 공개되었다.³ 이에 따라 『시물명고』에 대한 연구도 빈약하여 홍윤표의 논문⁴에서 『시물명고』를 『물명고』와 비교하여 간략히 언급한 이후 오보라의 논문⁵에서 다시 논의된 정도가 지금까지 연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시물명고』의 서지를 비롯하여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단독논문게재형 과제로 수행되었다 (AKSR2025-R04).

- 1 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生涯와國語學資料集』(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b), 55쪽.
- 2 한국학중앙연구원(편), 『晋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쪽.
- 3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生涯와國語學資料集』(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 4 홍윤표, 앞의 글(2000b).
- 5 오보라, 「西陂 柳僖 『物名考』의 체계 및 의의 제탐색」, 『대동한문학』 58(2019).

저술 목적과 체재, 저술 시기와 성격 등을 구명하여 『시물명고』의 향후 연구 및 활용에 (자료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시물명고』의 서지와 장서각 소장본

『시물명고』는 장서각에 기탁, 보관중인 『문통』 권5(首題는 ‘方便子纂文通卷之五’)에 유희의 다른 저술 『독시삼백(讀詩三百)』, 『서채전보설(書蔡傳補說)』과 함께 실려 전한다. 『문통』 권5의 전체적인 서지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⁶

1책, 67장(詩物名考 22.5장, 讀詩三百 22.5장, 書蔡傳補說 22장).

寫本. 크기: 29.3×19.8cm.⁷ 線裝.

필사면: 1면 12행, 1행 25자 내외. 夾註: 雙行小字.

表題: 文通(좌측 상단), 詩物名考·讀詩三百·書蔡傳補說(우측 상단).

首題: 方便子纂文通卷之五, 內題: 詩物名考, 讀詩三百, 書蔡傳補說.

紙質: 楮紙.

마이크로필름: MF35-11920.

『시물명고』가 수록된 『문통』 권5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01년

6 홍윤표, 앞의 글(2000b), 55쪽, 각주 12에서는 故 鄭亮秀 선생 소장의 『詩物名考』가 따로 존재하는 듯이 언급했으나, 오보라, 위의 글, 253쪽에서는 “서체·행자수·필사 흔적 등을 비교한 결과 장서각 소장 MF35-11920이 곧 홍윤표(2000b)의 논문에서 언급한 정양수 소장본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7 책의 크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앞의 책(2007), 7쪽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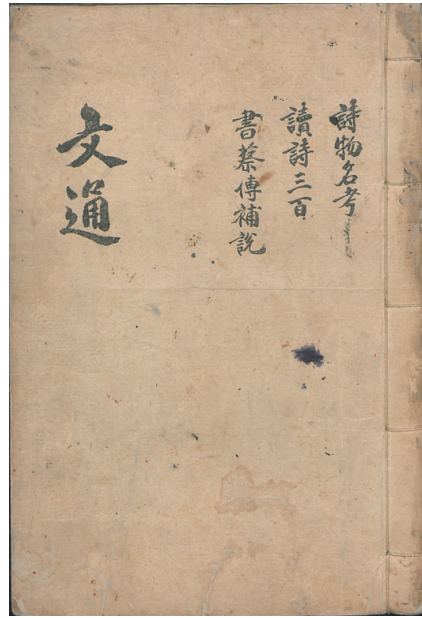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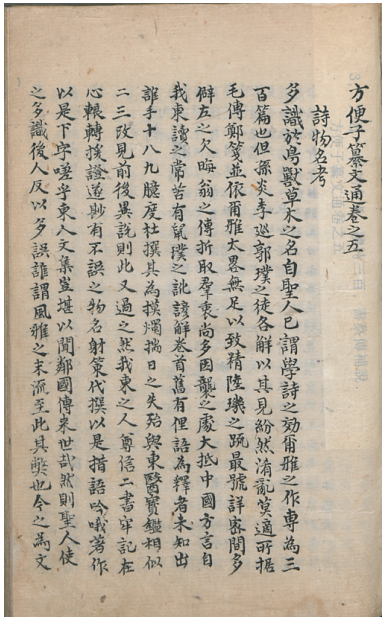


그림1-『시물명고』가 수록된 『文通』 권5의 卷首(왼쪽)와 외표지(오른쪽)

수집 정리한 ‘1차 정리본’(74종 74책)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1차 정리본’은 유희 후손가에 전하던 문헌 중 유희의 증손 유근영(柳近永, 1897~1949)의 주관 아래 진행된 정사(淨寫) 작업 결과물⁸에 해당한다. 유근영은 유희의 유고를 『방편자전서(方便子全書)』로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1931년부터 정사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⁹ 이때 작성된 『문통초수록(文通抄手錄)』에는 정사 작업에 참여한 인물과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이 『시물명고』를 담당한 정사자(淨寫者)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림2]의 『문통초수록』에는 ‘독시삼백(讀詩三百)’, ‘시물명고(詩物名考)’,

8 위의 책, 3쪽.

9 류재중, 「유희 『문통』의 여정」, 『晉州柳氏詩文資料集(西陂 柳僊 家門의 詩文集) 7』[진주류씨 대종회(목천공중회), 2023], 7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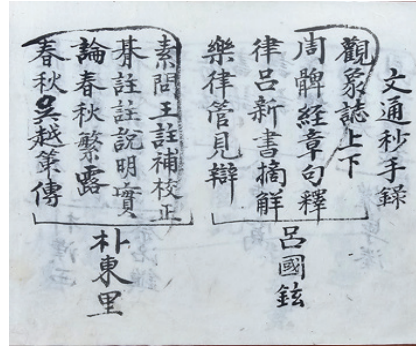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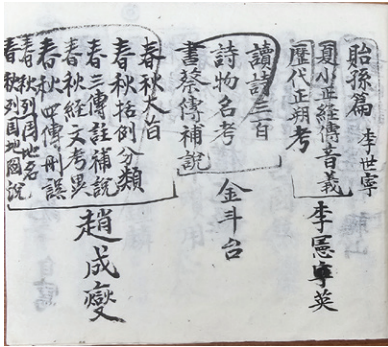


그림2-『文通秒手錄』의 ‘詩物名考’ 기록 부분(왼쪽)과 卷首 부분(오른쪽)

‘서채전보설(書蔡傳補說)’을 함께 묶어 김두태(金斗台)라는 인물이 정사를 담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사 작업이 완료된) 확인 표시(ㄱ)까지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정사 대상을 보면 순서만 약간 바뀌었을 뿐, 『문통』 권5의 외표지에 적힌 서명과 전연 일치한다. 『문통초수록』의 기록에 따를 경우 『문통』 권5에 수록되어 전하는 『시물명고』는 1930년대에 이루어진 정사본 가운데 하나로 보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한편, ‘1차 정리본’의 『문통』 권5와 비슷한 책이¹⁰ 장서각에서 2003년 수집 정리한 ‘2차 정리본’¹¹(45종 45책)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책에는 『독시삼백』과 『서채전보설』만 실려 있고, 『시물명고』는 표제 서명으로만 적혀 있을 뿐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2차 정리본’의 『문통』 권5(表題: 文通五)는 유희의 친

10 책의 서지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책, 34장(讀詩三百 17장, 書蔡傳補說 17장). 寫本. 크기: 20.6×20.5cm[한국학중앙연구원(편), 앞의 책(2007), 3쪽에 따름]. 線裝. 필사면: 1면 17행, 1행 25자 내외. 협주: 雙行小字. 表題: 文通五(좌측 상단), 詩物名考: 讀詩三百·書蔡傳補說(우측 상단). 內題: 讀詩三百, 書蔡傳補說. 紙質: 楮紙. 마이크로필름: MF35-13455.

11 위의 책, 3쪽에 따르면 ‘2차 정리본’은 ‘1차 정리본’의 底本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이지만 두 가지 정리본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필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¹² 아쉽게도 『시물명고』 부분이 누락된(곧 전송 과정에서 유실된) 관계로 현재는 『시물명고』를 ‘1차 정리본’ 속의 정사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친필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본의 수정 과정을 추적하거나 현전하는 정사본의 전사 오류를 파악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Ⅲ. 『시물명고』의 저술 목적

『시물명고』는 서명에 바로 드러나듯 “『詩經』의 物名에 대한 考察”을 내용으로 한다. 마침 『시물명고』에는 유희가 지은 서문이 있어 『시경』의 물명에 초점을 맞춘 저술 동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세상에 글을 짓는 자들은 먼저 물명(物名)에 해박해야 한다. 물명에 해박하려면 『詩經』을 우선시해야 한다. 『시경』을 배우려면 『詩經諺解』의 오류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여러 주석을 가져다 상고하고 다른 주장을 섞어 인용하되 개인적 견해를 간간이 덧붙임으로써 회옹(晦翁, =朱熹)의 의도를 완성하고자 힘썼으며 옛 해석의 오류도 버리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도모한 것은 많고, 주관적으로 결정한 것은 적다. 이 책을 보는 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배들의 주장을 함부로 고친 죄에 대해서는 감히 사양할 수 없는 점이 있다.¹³

12 김덕수, 「문통의 계통 연구: 구록과 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7-3(2014), 285쪽; 오보라, 앞의 글(2019), 254쪽.

13 “今之爲文者 不可不先乎博物 欲博物 不可不先乎詩 欲爲詩 不可不先正諺解之謬. 茲以考取諸註 雜引他說 間附己見 務完晦翁之意 不捨舊釋之失 廣謀則多 獨斷者少 所以令觀者 自得決訟, 至妄改前輩之罪 有不敢辭云”. 〈문통 3: 1a~1b〉. 번역은 김덕수, 『『시물명고』의 저술과 『시물명고』에 대한 서파의 언급』,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년도 원내 공동연구과제 결과보고회

위 서문에 따르면 시문을 찬술하기 위해서는 물명에 대한 해박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물명에 해박하기 위해서는 『시경』 학습이 급선무이며, 『시경』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시경언해』 오류의 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경언해』에 실린 물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유희는 이전 서책의 여러 주석과 자신의 견해를 적절히 섞어 인용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애쓴 것을 밝혔다. 이상에 더하여 『시경』의 물명을 다루면서 무엇보다 『시경언해』의 오류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 이유 또한 『시물명고』의 서문에 잘 드러난다.

대개 중국 方言은 우리나라 사람이 읽을 경우 이름과 실상이 부합하지 않는 오류가 늘 있기 마련이다. 『시경언해』 매권 첫머리에 예전부터 우리말(俚語)로 諺釋을 단 것이 있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근거 없이 억측한 것이 심중팔구다. 등불을 더듬으면서 태양이라고 착각하는 장님처럼 오류를 범하는 것이 『東醫寶鑑』의 경우와 흡사하다. 두세 곳에서 전후의 다른 설명을 수정하기도 했으나 이것 역시 지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책을 존송하고 맹신하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한 뒤, 걸핏하면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므로 마침내 올바른 물명이 드물게 되었다.¹⁴

위 서문에 따르면 『시경언해』에 실린 언석은 근거 없이 억측으로 된 것이 많은데 이는 『동의보감』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두 문헌은 술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들이 존송하고 맹신하여 결국은 올바른 물

발표 요지(2021)에 따름.

- 14 “大抵中國方言 自我東讀之 常苦有鼠璞之訛. 諺解卷首 舊有俚語爲釋者 未知出誰手 十八九臆度杜撰 其爲摸燭揣日之失 殆與《東醫寶鑑》相似. 二三改見前後異說 則此又過之. 然我東之人 尊信二書 牢記在心 輒轉援證 遂渺有不誤之物名”. 〈문통 3: 1a〉.

명이 드물게 되기까지 이른 현실을 비판했다. 이와 같이 『시경언해』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 저술 동기는 유희의 다른 저술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저술 시기가 『시물명고』보다 늦은 『만물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학사(學士) 조종진(趙琮鎭)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문집은 다른 나라에 보여 줄 수 없으니, 물명을 오용하기 때문이다. 물명의 오용은 다른 책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유합(類合)』, 『동의보감』, 『시경언해』 3책 때문이다. 모두 언문 주석(諺釋)을 달았는데 후학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굳게 기억한 탓에 한 시대가 부화뇌동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 했다. 『유합』의 오류는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가 대략 바로잡은 것이 있어서 지금 『서자류(書字類)』에 수록했다. 『시경언해』의 경우는 내가 『시물명고』¹⁵ 1권을 저술하여 논증한 적이 있다. 따라서 『동의보감』의 오역들을 모아서 독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¹⁶

위에서는 물명 오용이 시문 찬술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뒤 그 원인을 『유합』, 『동의보감』, 『시경언해』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조종진(趙琮鎭, 1767~1845)의 견해이지만 유희 자신도 심분 공감하는 바였다. 『유합』의 경우는 이광사가 이미 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있어 『서자류(書字類)』¹⁷에 수록했고 『시경언해』의 경우는 자신이 『시물명고』를 저술하여 논증했음을 명

15 원문에는 ‘物名考’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詩物名考』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16 “趙學士琮鎭嘗言‘東人文集 不可使見於他邦 以其物名之誤用也. 物名之誤 非緣他書 只因徐四佳類合及東醫寶鑑·詩諺解三處 皆懸諺文之註 後生見此 牢記在心 一世雷同 曉悟不得也.’類合之誤 李圓嶠匡師略有所正 今載之書字類 而詩諺解 則敝嘗著物名考一卷以論之. 故撮東醫之謬釋者 使看者得以考取焉”. 〈文通 10, 萬物類〉. 번역은 김덕수, 앞의 글(2021)에 따름.

17 『文通』권10에 「萬物類」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확히 밝혔다. 다만 여기에서 미처 변증하지 못한 『동의보감』의 오류는 바로 『만물류(萬物類)』에 모아 바로잡고자 하는 입장도 피력하였다.¹⁸

IV. 『시물명고』의 저술 체재

『시물명고』의 저술 동기가 『시경언해』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있었으므로 『시물명고』는 체재상 『시경언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시경언해』(1613)¹⁹는 각 권의 卷頭に「物名」을 따로 싣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物名」은 “앞에 한자가 표제어로 붙어 있고 그 뒤에 한글로 그 명칭을 달거나, 그 명칭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놓”은 체재를 취하고 있다.²⁰ “결국 『시경언해』에 보이는 「物名」은 『시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문장 속에 보이는 특이한 한자를 우리말로 주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시경언해』 권 1의 卷頭に 실린 「物名」에서 실제 예를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²²

18 오보라, 앞의 글(2019), 263쪽.

19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원간본(도서번호: 奎2425-v.1)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활자본(훈련도감자), 35.8×21.5cm, 사주쌍변, 반엽광곽: 24.4×16.1cm, 유계, 10행 19자, 주쌍행, 판심: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 내사기: 萬曆四十一年(1613)九月日. 1992년 弘文閣에서 영인본으로 출판된 바 있다(해제: 홍윤표).

20 홍윤표, 앞의 글(2000b), 53쪽.

21 위의 글, 56쪽.

22 단, 원문의 언석 부분을 【 】안에 넣어 구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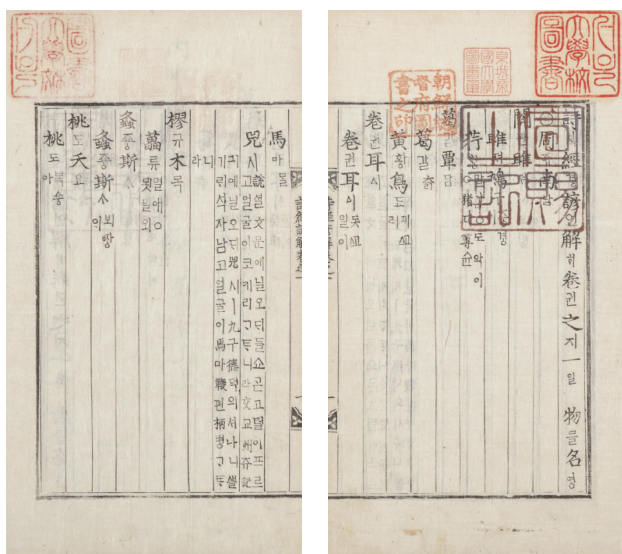


그림3-『시경언해』 권1(규장각본 奎2425-v.1)의 物名 1a~1b 부분

〈詩經諺解 1: 物名1a~1b〉

○周黍南남

關雎雎저

雎저鳩구【중경이】

符형【말암○도악이○猪터尊순】

葛갈覃담

葛갈【츄】

黃황鳥도【괴소리】

卷권耳시

卷권耳시【뚝꼬말이】

馬마【물】

兒시【說설文문에 날오디 들쇼 곤고 털이 프르고 얼굴이 코키리 그터니

라 交州州記에 載오되 甞시 | 九구德덕의셔 나니 甞 기리 석 자 남
고 얼굴이 馬馬鞭鞭柄柄 77니라】

위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경언해』에 실린 한자 표제어는 모두 342항목에 이른다. 이들 항목의 배열 순서는 『시경』의 편차에 따른 순서일 뿐 순서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물명고』는 『시경언해』에 수록된 표제어를 대체로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열 순서에서도 『시경언해』의 순서(곧 『시경』의 편차에 따른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²³ 이러한 체재상 특징으로 보자면 『시물명고』는 “『시경언해』의 물명을 자세히 주석한 것”,²⁴ 곧 “『시경언해』의 「물명」에 나오는 항목들을 상세하게 고증하고 교정하고 보충하고 해설한 것”²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시경언해』 권1의 「物名」에 대응되는 부분을 『시물명고』에서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文通 5: 1b~2a〉

周南

關雎 ○ 雎鳩【一名, 王雎. 自《爾雅》已然. 郭《註》, 雕類, 江東呼爲鷀, 好在江邊, 食魚. 陸《疏》云, 如鷀, 深目, 目上骨露, 幽州呼爲鷀, 好對峙, 相距數丈. 許慎曰, 白鷀, 似鷀, 尾上白. 《禽經》云, 沸波, 在岸則魚涌, 卽鷀也. 鼻有毛, 堆似鷀而大, 今之鷀是也. 《左傳》郊子曰, 雎鳩氏, 司馬也. 杜《註》, 鷀而有別, 主法制, 政得司馬征伐之義. 而毛《傳》, 鷀而有別, 作鷀, 鷀, 古鷀字, 而後人或疑爲情鷀之意, 故朱子謂狀類鷀鷀, 江淮有之. 据楊雄賦, 王雎關關, 鴻雁嚶嚶, 並言於水鳥. 《焦易》則云, 貞鳥雎鳩. 《本

23 물론 표제어가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변화 및 표제어 한자가 수정되는 변화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4 홍윤표, 앞의 글(2000b), 55쪽.

25 위의 글,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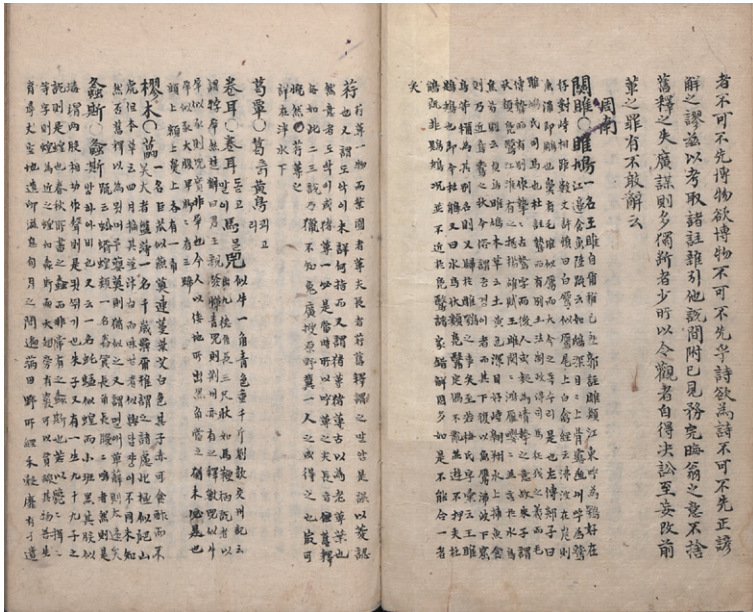


그림4-『시물명고』의 1b~2a 부분

草云, 土黃色, 深目, 好峙, 翱翔水上, 捕魚食, 則乃近鳶鷂之狀, 今俗謂증경이者, 而其下復以魚鷹·沸波·下窟烏等稱爲其別名, 則又歸於雕鶚之事矣. 至若梅氏《字彙》云, 王雉, 鷓鴣也, 卽今杜鵑. 又曰, 水鳥, 狀類鳬鷖, 定偶不亂, 並遊不狎. 夫杜鵑, 既非鷓鴣, 況並不近於鳬鷖, 諸家錯解, 固多如是不能合一者矣.】

荇【荇·蓴一物, 而葉圓者, 蓴, 尖長者, 荇. 舊釋謂之말암, 是誤以菱認也. 又謂도악이, 未詳何指, 而又謂猪蓴, 猪蓴, 古以爲老蓴葉也. 然意者, 도악이, 或猪蓴一, 必是當時所以呼蓴之尖長者, 但舊釋每如此二三說, 乃獵不知兔, 廣搜原野, 冀一人之或得之也, 取可慨然. ○荇·蓴之詳, 在《泮水》下.】

葛覃 ○葛【츄】黃鳥【코고리】

卷耳 ○卷耳【돈고말이】馬【말】兕【말】兕【似牛, 一角, 青色, 重千斤. 劉歆《交州記》云, 出九德, 角長三尺, 狀如馬鞭柄. 說者以謂特犀. 然《楚辭》曰, 君王親發, 憚青兕, 則荊州

亦有之。〈釋獸〉兕似牛，犀似豕，則兕，實非犀也。今人以倭地所出黑角當之，猶未必是也。犀似豕，大腹卑脚，脚有三蹄，頭上·額上·鼻上，各有一角。】

앞서 언급한 대로 두 문헌은 물명을 수록한 편명(篇名) 및 표제어의 나열 순서가 대체로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편명과 표제어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했는지(곧 移行 방식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圓圈[○] 방식을 적용했는지)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표제어(=한자 물명)에 대한 주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물명고』가 『시경언해』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성격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시경언해』의 ‘諺釋’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시물명고』에서는 『시경언해』와 마찬가지로 ‘언석’만 제시해 두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곧 『시경언해』의 ‘언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 『시물명고』에서는 『시경언해』의 ‘언석’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잘못을 변증했다.

앞의 예시에서 우선 ‘雉鳩’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시경언해』에서는 ‘雉鳩’의 ‘언석’을 ‘중경이’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물명고』에서는 여러 가지 옛 문헌의 설명을 참조할 때 ‘독수리’²⁶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경언해』의 언석 ‘중경이’를 부인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주자가 모양이 오리와 비슷하다 하고 양웅의 부(賦)에 물새라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로부터 (원앙을 가리키는) ‘중경이’가 언석으로 수록되었을(=잘못된 언석이 정착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논의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언석’의 변증에 초점을 맞춘 점은 ‘荇’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시경언해』에서는 ‘荇’에 대하여 ‘말암○도악이○猪蹄

26 오늘날의 ‘독수리’와 달리 ‘수리 중에 큰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시물명고』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鵬, 今之수리, 大者又名鵬, 今之독수리”. <18b>

蓴순'으로 여러 '언석'을 나열하였다. 이에 대해 『시물명고』에서는 여러 언석 중 '마름'은 '蓴(행)'을 '菱(능)'으로 착각한 결과이고 '도악이'는 지시 대상이 불분명한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저순(猪蓴)'에 한하여 ('蓴'이 '蓴'과 동일한 종류라는 전제 아래²⁷⁾) "'蓴(순)' 중에서 길고 뾰족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했다. 『시물명고』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름'이나 '도악이'는 언석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지만 『시경언해』에서는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언석까지 포함하여 여러 언석을 무분별하게 함께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이처럼 '雕鳩'와 '蓴'의 예만 보더라도 『시물명고』 특유의 서술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경언해』와 견해가 다를 경우 『시물명고』에서는 반드시 『시경언해』의 '언석'을 먼저 검토하며 비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이 '언석'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은 비슷한 시기의 저술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시경언해』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저술 목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시물명고』에서 표제어의 배열 순서는 『시경언해』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표제어 자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시경』의 편차에 따른 표제어 순서를 유지하면서도 『시경언해』의 표제어가 중복 출현할 때는 삭제하기도 하고 새로운 표제어가 필요할 때는 추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두 문헌의 표제어 수록 현황을 비교해 보이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표제어의 전체 수효는 『시경언해』 351개, 『시물명고』 342개로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표제어의 세부 내역을 검토해 보면 삭제, 추가, 수정 등을 통한 변화가 적잖이 발견된다. 첫째, 『시경언해』에 수록된 351개 표제어 중 69개가 『시물명고』에서 삭제되었다. 적지 않은 수효라 할 수 있

27 『시물명고』의 「泔水」 편 「茆(묘)」에 대한 주해에 자세한 논의가 나온다.

표1-『시경언해』와 『시물명고』의 표제어 수록 현황 비교

『시경언해』(1613)		『시물명고』(1811무렵)		비고
권	편명(표제어 수)		편명(표제어 수)	
1	○周南 (17)	關雎(2) 葛覃(2) 卷耳(3) 樛木 (1) 蠡斯(1) 桃夭(1) 兔置(1) 芣 苢(1) 漢廣(3) 汝墳(1) 麟之趾 (1)	周南 (17)	關雎(2) 葛覃(2) 卷耳(3) 樛木 (1) 蠡斯(1) 桃夭(1) 兔置(1) 芣 苢(1) 漢廣(3) 汝墳(1) 麟之趾 (1)
	○召南 (26)	鵲巢(2) 采芣(1) 草蟲(4) 采蘋 (2) 甘棠(1) 行露(2) 羔羊(2) 標 有梅(1) 野有死麕(4) 何彼穠矣 (2) 騶虞(5)	召南 (25)	鵲巢(2) 采芣(1) 草蟲(3) 采蘋 (2) 甘棠(1) 行露(2) 羔羊(1) 標 有梅(1) 野有死麕(5) 何彼穠矣 (2) 騶虞(5)
2	○邶風 (17)	栢舟(1) 燕燕(1) 凱風(1) 雄雉 (1) 匏有苦葉(2) 谷風(4) 旄丘 (1) 簡兮(3) 北風(1) 靜女(1) 新 臺(1)	邶 (18)	栢舟(1) 燕燕(1) 凱風(1) 雄雉 (1) 匏有苦葉(2) 谷風(4) 旄丘 (1) 簡兮(3) 北風(1) 靜女(1) 新 臺(2)
	○鄘風 (10)	墻有茨(1) 桑中(2) 鶉之奔奔 (1) 定之方中(6)	鄘 (11)	墻有茨(1) 桑中(2) 鶉之奔奔 (1) 定之方中(6) 載馳(1)
3	○衛風 (15)	淇奥(1) 碩人(7) 氓(1) 竹竿(2) 芄蘭(1) 河廣(1) 伯兮(1) 木瓜 (1)	衛 (17)	淇奥(1) 碩人(7) 氓(2) 竹竿(2) 芃蘭(1) 河廣(1) 伯兮(1) 木瓜 (2)
	○王風 (19)	黍離(2) 君子于役(3) 揚之水 (3) 兔爰(2) 葛藟(2) 中谷有蓷 (1) 采芣(2) 大車(1) 丘中有麻 (3)	王 (11)	黍離(2) 君子于役(2) 揚之水 (2) 中谷有蓷(1) 采葛(2) 大車 (1) 丘中有麻(1)
4	○鄭風 (20)	將仲子(3) 大叔于田(4) 羔裘 (2) 女曰鷄鳴(1) 有女同車(1) 山有扶蘇(4) 東門之墠(2) 出其 東門(1) 溱洧(2)	鄭 (13)	將仲子(2) 叔于田(2) 羔裘(1) 女曰鷄鳴(1) 有女同車(1) 山有 扶蘇(3) 東門之墠(1) 溱洧(2)
	○齊風 (13)	鷄鳴(2) 還(1) 東方未明(1) 南 山(4) 盧令(1) 敝笱(3) 載樞(1)	齊 (8)	鷄鳴(1) 還(1) 東方未明(1) 甫 田(1) 盧令(1) 敝笱(2) 載樞(1)
5	○魏風 (12)	葛屨(1) 汾沮洳(3) 園有桃(2) 伐檀(3) 碩鼠(3)	魏 (6)	葛屨(1) 汾沮洳(2) 伐檀(1) 碩 鼠(2)

주: 1) 비교의 ‘ ’안은 표제어, ()안은 편명.

『시경언해』(1613)			『시물명고』(1811무렵)		비고
권	편명(표제어 수)		편명(표제어 수)		
6	○唐風 (27)	蟋蟀(1) 山有樞(7) 椒聊(1) 綢繆(2) 杖杜(1) 羔裘(2) 鶉羽(8) 葛生(2) 采芣(3)	唐 (13)	蟋蟀(1) 山有樞(4) 椒聊(1) 杖杜(1) 鶉羽(4) 葛生(1) 采芣(1)	삭제(23): ‘馬’, ‘漆’, ‘栗’(山有樞); ‘薪’, ‘楚’(綢繆); ‘羔’, ‘豹’(羔裘); ‘稷’, ‘黍’, ‘棘’, ‘桑’(鶉羽); ‘葛’(葛生); ‘芣’, ‘葑’(采芣); ‘驪’, ‘虎’, ‘兼’, ‘竹’(小戎); ‘狐’(終南); ‘黃鳥’, ‘棘’, ‘楚’, ‘虎’(黃鳥) 추가(2): ‘白顛’(車鄰); ‘驥’(駟驥)
	○秦風 (25)	車鄰(1) 駟驥(2) 小戎(9) 終南(4) 黃鳥(4) 晨風(5)	秦 (18)	車鄰(2) 駟驥(3) 小戎(5) 兼葭(1) 終南(2) 晨風(5)	
7	○陳風 (11)	東門之枌(2) 東門之池(2) 東門之楊(1) 墓門(1) 防有鵲巢(2) 澤陂(3)	陳 (11)	宛丘(1) 東門之枌(2) 衡門(1) 東門之池(2) 墓門(1) 防有鵲巢(2) 澤陂(2)	삭제(2): ‘楊’(東門之楊); ‘荷’(澤陂) 추가(2): ‘鷺’(宛丘); ‘鯉’(衡門)
	○檜風 (1)	隰有萋楚(1)	檜 (1)	隰有萋楚(1)	
	○曹風 (5)	蜉蝣(1) 候人(1) 鴉鵂(1) 下泉(2)	曹 (5)	蜉蝣(1) 候人(1) 鴉鵂(1) 下泉(2)	
8	○幽風 (33)	七月(24) 鷓鴣(2) 東山(6) 九罇(1)	幽 (37)	七月(26) 鷓鴣(1) 東山(9) 九罇(1)	삭제(1): ‘茶’(七月) 추가(5): ‘蠶’, ‘茅’(七月); ‘埵’, ‘瓜苦’, ‘皇·駁’(東山) 수정(1): ‘宵行’ → ‘熠燿·宵行’(東山)
9	○鹿鳴 什 (21)	鹿鳴(3) 四牡(2) 皇皇者華(2) 常棣(1) 伐木(1) 采芣(3) 魚麗(5) 南有嘉魚(1) 南山有臺(3)	小雅 (21)	鹿鳴(3) 四牡(2) 皇皇者華(1) 常棣(2) 伐木(1) 采芣(2) 魚麗(4) 南有嘉魚(2) 南山有臺(4)	삭제(4): ‘騏’(皇皇者華); ‘象’(采芣); ‘鯉’(魚麗); ‘桤’(南山有臺) 추가(4): ‘棠棣’(常棣); ‘甘瓠’(南有嘉魚); ‘杞’, ‘枸’(南山有臺)
10	○彤弓 之什 (5)	菁菁者莪(1) 六月(1) 采芣(2) 吉日(1)	(小雅) (8)	菁菁者莪(2) 六月(1) 采芣(2) 吉日(1) 鶴鳴(2)	추가(3): ‘朋’(菁菁者莪); ‘鶴’, ‘穀’(鶴鳴)
11	○祈父 之什 (9)	白駒(1) 黃鳥(1) 我行其野(2) 斯干(4) 正月(1)	(小雅) (13)	白駒(2) 黃鳥(1) 我行其野(2) 斯干(6) 無羊(1) 正月(1)	삭제(1): ‘穀’(黃鳥) 추가(5): ‘芻’(白駒); ‘栗’(黃鳥); ‘輦’, ‘莞’(斯干); ‘蔣’(無羊)
12	○小旻 之什 (11)	小旻(1) 小宛(3) 小弁(1) 巧言(1) 何人斯(1) 巷伯(1) 蓼莪(1) 四月(2)	(小雅) (15)	小旻(1) 小宛(4) 小弁(1) 巧言(2) 何人斯(1) 巷伯(2) 蓼莪(1) 四月(3)	추가(4): ‘鳴鳩’(小宛); ‘鳧兔’(巧言); ‘貝’(巷伯); ‘鶉’(四月)

『시경언해』(1613)			『시물명고』(1811무렵)		비고
권	편명(표제어 수)		편명(표제어 수)		
13	○北山之什 (2)	信南山(1) 大田(1)	(小雅) (6)	信南山(1) 大田(4) 常常者華(1)	추가(4): ‘螳’, ‘蠹’, ‘賊’(大田); ‘常’(常常者華)
14	○桑扈之什 (10)	桑扈(2) 鴛鴦(2) 頍弁(2) 車輦(2) 采菽(1) 角弓(1)	(小雅) (9)	桑扈(1) 鴛鴦(1) 頍弁(2) 車輦(2) 賓之初筵(1) 采菽(1) 角弓(1)	삭제(1): ‘兕’(桑扈) 추가(1): ‘賁’(賓之初筵) 수정(2): ‘鴛’, ‘鴦’ → ‘鴛鴦’(鴛鴦); ‘蘿’ → ‘女蘿’(頍弁)
15	○都人之什 (7)	都人士(1) 采芣(2) 白華(3) 漸漸之石(1)	(小雅) (9)	都人士(1) 采芣(2) 白華(3) 漸漸之石(1) 芣之華(2)	삭제(1): ‘鶴’(白華) 추가(2): ‘芣’, ‘泔羊’(芣之華) 수정(1): ‘白華’ → ‘白華菅茅’(白華)
16	○文王之什 (12)	大明(1) 緜(3) 棫樸(1) 旱麓(1) 皇矣(4) 靈臺(1) 文王有聲(1)	大雅 (12)	大明(2) 緜(3) 旱麓(1) 皇矣(5) 靈臺(1)	삭제(2): ‘樸’(棫樸); ‘芑’(文王有聲) 추가(2): ‘驪’(大明); ‘桀’(皇矣)
17	(없음)	(없음)	(大雅) (10)	生民(7) 行葦(1) 鳧鷖(1) 卷阿(1)	추가(10): ‘達’, ‘荏菹’, ‘秬’, ‘秠’, ‘麋’, ‘芑’, ‘羝’(生民); ‘台’(行葦); ‘鷖’(鳧鷖); ‘鳳凰’(卷阿)
18	(없음)	(없음)	(大雅) (7)	蕩(1) 韓奕(4) 瞻印(2)	추가(7): ‘塘’(蕩); ‘筍’, ‘蒲’, ‘貓’, ‘貔’(韓奕); ‘臬’, ‘鷗’(瞻印)
19	○周頌 (8)	思文(2) 振鷺(1) 豐年(1) 潛(1) 小毖(3)	周頌 (7)	思文(2) 豐年(1) 潛(1) 小毖(3)	삭제(1): ‘鷺’(振鷺)
20	○魯頌 (14)	駉(12) 有駉(1) 泮水(1)	魯頌 (13)	駉(9) 有駉(1) 泮水(1) 閟宮(2)	삭제(3): ‘黃’, ‘駱’, ‘駟’(駉) 추가(2): ‘稭’, ‘穉’(閟宮)
	○商頌 (1)	玄鳥(1)	商頌 (1)	玄鳥(1)	
계		351		342	

지만 삭제된 표제어 대부분은 ‘馬’, ‘桑’, ‘麥’, ‘虎’ 등과 같이 단순히 중복 출현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둘째, 『시경언해』에 수록되지 않은 표제어가 『시물명고』에서 61개가 추가되었다. 특히 권 17~18에서는 표제어 선정이 아예 없던 『시경언해』와 달리 무려 17개나 되는 표제어가 집중적으로 추가되기도 했다.²⁸ 추가된 표제어가 적지 않은데다 『시물명고』의 저술 취지에 부응하여 의도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수이지만 『시물명고』에 와서 표제어의 한자가 수정된 경우(8개)도 있다. 기존에 2개로 나뉘었던 표제어를 단순히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고[예: 鴛, 鴦(2개) → 鴛鴦(1개)], 기존의 표제어가 (지시 대상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아 변경한 경우도 있다[예: 竹 → 綠竹, 蘇 → 扶蘇, 鼠 → 碩鼠 등]. 후자의 경우는 추가된 표제어와 함께 『시물명고』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논의 초점이 ‘언석’에 있는 만큼 『시물명고』에는 『시경언해』의 「物名」에 등장하는 ‘언석’을 포함하여 무려 617개(중복을 제외하면 550개)에 달하는 한글 물명이 등장한다. 『물명고』 2책에 등장하는 한글 물명의 수가 총 1,699개인 점을 감안하면 책의 분량이 『물명고』의 1/5(『물명고』 105장, 『시물명고』 23장) 정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물명고』에는 (『물명고』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수의 한글 물명이 수록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 물명을 『시경언해』의 「物名」에 수록된 ‘언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

28 이들 표제어 중 상당수가 청나라 徐鼎의 『毛詩名物圖說』(1771)에도 동일하게 보인다. 이러한 일치가 우연에서 비롯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시물명고』에서 표제어를 추가할 때 앞서 중국에서 저술된 문헌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 연구』 18(2014), 90쪽에서는 牟應震의 『毛詩物名考』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 『시경언해』나 『시물명고』의 표제어 및 그 기술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의 저술로부터 받은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을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시경언해』의 ‘언석’을 유지한 경우

a. 葛【**측**】, 馬【**물**】〈2a〉

a'. 葛【**측**】, 馬【**물**】〈시경언해 1: 物名1a~1b〉

b. 黃鳥【**괴고리**】, 卷耳【**돈고말이**】〈2a〉

b'. 黃鳥【**괴꼬리**】, 卷耳【**돛꼬말이**】〈시경언해 1: 物名1a〉

② 『시경언해』의 ‘언석’을 수정한 경우

a. 莎鷄【《疏》云, 如蝗斑色, 毛翅數重, 其翅正赤. 六月振飛, 索索作聲, 分明是紅娘子, 今之**뽀삐히**, 而舊釋以爲**뽀짱이**, 誤也. 朱子又以斯螽·莎鷄·蟋蟀爲一物, 隨時變化, 亦非嘗然也. 】〈13a〉

a'. 莎鷄【**뽀짱이**】〈시경언해 7: 物名3a〉

b. 羔【小曰羔, 大曰羊. 明羔是羊子也, 舊釋既言**산기양**, 而又言**염쇼**. **염쇼**, 乃蒙古羊, 近世始有之, 豈可謂古人所裘**羊양**. 】〈4a〉

b'. 羔【**삿기양○염쇼**】〈시경언해 1: 物名3b〉

c. 魚【魚, 東海獸似猪, 背皮斑文, 以爲器服, 經年之後, 海潮及天雨, 其毛皆起. 舊釋謂之**반달피**, 未知**반달피**之果如是與否, 當更攷驗. 】〈15b〉

c'. 魚【**반달피**】〈시경언해 9: 物名5b〉

d. 莠【莠, 稂屬. 稂生於田中, 穗大而紫, 亦名狼尾, **가라디**也. 莠生於垣牆, 穗小而黃, 亦名狗尾, **강아지풀**也. 】〈9a〉

d. <시경언해>(권5「보전(甫田)」편)에 ‘莠’ 항목 없음

③『시경언해』의 ‘언석’과 별도로 한글 물명을 추가한 경우

a. 蠨蛸【《爾雅》有蠨蛸長跣之文，故說者多以蠨蛸爲長脚蜘蛛。然《爾雅》所以連舉二蟲之名，蠨蛸，一名蠨子，俗曰來著人衣，當有親客者，卽걸거미也。長跣，在草間，身如米粒，股長三四寸，節節動搖，不能行者，卽실거미也。○蜘蛛之種，此外又有蛸螯，張網甚大，땃거미也。螭螭，網覆土穴，땅거미也。天蛇，五采在草，오식거미也。蠅虎，捕蠅，호근거미也。壁錢，在壁，납거미也。】

a'. 蠨蛸【걸거미】<시경언해 7: 物名4a>

①은『시경언해』의 ‘언석’을『시물명고』에서 유지한 경우이다. ‘언석’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문 주해를 통한 변증 없이 ‘언석’만 제시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시경언해』(a', b)와 비교할 때『시물명고』에서 a와 같이 표기까지 동일한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언어 변화 등에 따라) b와 같이 표기 차이를 수반하여 등장한다. 다만 일부 차이는 윤희의『언문지』(1824)에서 밝힌 표기법과 관계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⁹

②는『시경언해』의 ‘언석’을『시물명고』에서 수정한(=바로잡은) 경우이다.『시경언해』의 ‘언석’에 대하여 새로운 ‘언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문 주해를 통해 ‘언석’의 타당성에 대한 변증을 세밀하게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 수정

29 표기상 종성 ‘ㄷ’과 각자병서를 사용한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 윤희는『언문지』(1824)에서 종성 ‘ㅅ’의 무용론과 더불어 경음 표기에 (함용병서 대신) 각자병서를 쓸 것을 주장했는데『시물명고』에는 이러한 표기관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19세기 다른 문헌과 달리)『시물명고』에는 종성 ‘ㅅ’이 ‘ㄷ’으로 적혀 등장하며[예: 외안<4b>, 잔<7a>, 피이스란<15b>, 돈<20a>, 온밤이<22a> 등] 경음 표기는 각자병서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피꼬리<12b>, 귀또람이<10a>, 구지뽕<21b>, 다복쑥<3a>, 피짱이<3a> 등].

방식은 a와 같이 기존의 잘못된 ‘언석’(『시경언해』의 것)을 새 ‘언석’으로 대체하는³⁰ 것이 주된 방식이지만 b와 같이 기존에 제시된 여러 ‘언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인정하는³¹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c)와 같이 기존의 ‘언석’을 부정하기만 하고 별도의 새 ‘언석’을 제시하지 않는³² 경우도 있고, d와 같이 『시경언해』에 없던 표제어가 추가되면서 이에 병행하여 새로운 ‘언석’이 추가되는³³ 경우도 발견된다. a~d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석’은 『시물명고』의 저술 목적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물명고』의 특성 내지 의의를 가장 뚜렷이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③은 『시경언해』의 ‘언석’과 별도로 한글 물명이 추가된 경우이다. 이러한 추가는 여러 가지 세부 종류를 나열하여 소개하는³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
- 30 ②-a의 경우, ‘莎鷄(사계)’의 언석으로 『시경언해』에서는 ‘배짱이[뵤뽕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물명고』(a)에서는 문헌에 기술된 ‘莎鷄(사계)’의 특징으로 보아 ‘紅娘子(홍낭자)’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올바른 언석으로 ‘팔중이[푼뻘히]’를 대신 제시했다.
- 31 ②-b의 경우, 『시경언해』에서는 ‘羔(고)’의 언석으로 ‘새끼양[산기양]’과 함께 ‘염소[염소]’가 나란히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물명고』(b)에서는 ‘염소’가 곧 ‘蒙古羊(몽고양)’으로서 근세와 와서나 비로소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羔(고)’의 언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새끼양[산기양]’의 언석만 인정했다. 앞서 ‘芣’의 경우도 『시경언해』의 여러 언석(마름○도락이○더술) 가운데 어느 하나(더술)만 수긍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 32 ②-c의 경우, ‘魚(어)’의 언석으로는 『시경언해』에서 ‘반달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물명고』(c)에서는 ‘반달피’라는 언석을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하는 내용과 과연 부합하는지 알 수 없어 마땅히 다시 증험해야만 한다고 했다.
- 33 ②-d의 경우, 『시경언해』에는 없으나 『시물명고』(d)에서는 ‘莠(수)’를 대상으로 주해를 추가하였다. 『시물명고』에서는 ‘莠(수)’의 언석으로 ‘강아지풀[강아지풀]’을 제시하는 한편, 담장에서 자라는 ‘莠(수)’와 대비하여 밭에서 자라는 ‘稂(낭)’을 구별하고 ‘稂(낭)’에 대한 언석으로는 ‘가라지[가라디]’를 따로 제시했다.
- 34 이는 유희가 바라보는 물명서의 요건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유희는 『재물보』에 대한 證閱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재물보』의 저자 李晩永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바 있다. 여기서 유희는 “물종이 너무 번다하여 일일이 다 수록할 수 없다 하여 내가 아는 것만 열거해 서는 안 됩니다[是其物種之極繁 難悉者不可 只舉吾之所知也]”라 하고 ‘牽强’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문환, 「柳僖의 『才物譜』 비판을 통해 본 『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柳僖가 李晩永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2016), 90쪽, 99쪽.

가 대부분인데 a에서는 원권(○) 다음에 ‘거미’의 여러 종류를 나열하면서 한자 물명과 더불어 그에 대응되는 한글 물명이 추가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물명은 『물명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물명은 『시물명고』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예컨대, a의 한글 물명 가운데 ‘글거뭇’과 ‘납거뭇’을 제외하면 ‘실거뭇, 뭇거뭇, 땅거뭇, 오식거뭇, 효근거뭇’ 등은 『시물명고』에서만 볼 수 있는 물명들이다.

V. 『시물명고』의 저술 시기

저술 목적과 달리 『시물명고』에는 저술 시기를 밝혀 줄 직접적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유희가 지은 서문이 있지만 서문에서는 저술 시기와 관련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유희가 주고받은 서독(書牘) 자료를 통하여 『시물명고』가 탈고된 시기의 윤곽만큼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유희가 1810년(순조 10) 4월 22일 가곡(稼谷) 윤광안(尹光顔)에게 보낸 간찰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순채[蓴] 맛에 대해 성대히 말했으나 저는 이것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에 들어와 제천(堤川) 의림지(義林池)에서 자라는 것을 비로소 증험해 보니 『본초강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잎이 손바닥처럼 크고 적색이라고 했는데 제천 것은 동전처럼 작고 적색이 아니었으며, 『본초강목』에는 꽃이 황백색이고 열매가 자주색이라 했는데 제천 것은 꽃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9월 이후에 차츰 단단해지다가 11월에 진흙 속에서 싹트는 것을 ‘塊蓴(괴순)’이라 부른다고 했는데 제천 것은 가을이 온 뒤에 다 없어져 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육기(陸機)가 말하기를 “즐기

는 비(匕; 숟가락)의 자루처럼 생겼고 줄기는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라 했는데 제천 것은 줄기가 새끼줄처럼 가늘고 줄기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장한(張翰)이 기억한 것은 국이었는데 제천 것은 물에 삶아 냉도(冷淘)를 만들기는 하지만 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 여러 서적에서 “둥근 것이 ‘蓴’이고 긴 것이 ‘苽’이다”라고 했는데 ‘苽(행)’의 경우는 『시경언해』의 풀이가 틀린 곳이 많아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전(毛傳)』과 『본초강목』을 널리 상고해 보니 ‘苽’ 역시 ‘萍(평)’의 일종으로서 지금의 ‘개연(개넌)’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개연(개넌)’과 제천의 ‘蓴’은 차이가 큼니다. 심지어 제천에서 자라는 다른 종류의 것은 처음 줄기와 잎이 생길 때 수정과 같은 것이 엉겨 붙어 표면을 싸고 있어서 물에 삶아도 영롱하게 변하지 않는데 옛 서적을 상고해 보아도 비슷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육기(陸機)가 “손을 대면 미끄러워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비록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소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경』 물명에 주석을 다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반수(泮水)」의 ‘茆(묘)’자 아래를 일단 비워둔 채 기다리고 있으니 가르침을 바랍니다.³⁵

인용문에서 유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문에 상용되는 ‘순채[蓴]’라는 용어에 대해 윤광안에게 질문한다. 유희는 제천 의림지에서 산출되는 ‘순채[蓴]’와 여러 문헌에서 설명하는 ‘蓴’의 특징을 여러 층위에서 비교하면서 의

35 『方便子書牘』〈上稼谷〉【四月二十二日】，“我東自古盛言蓴味 而微未及嘗 及到此峽 始驗堤川義林池所產 則大與本艸相左. 本艸葉大如手掌色赤 而堤則小如銅錢不赤. 本艸花黃白子紫色 而堤則無花子. 本艸九月以後漸粗硬 十一月萌在泥中者 名塊蓴 而堤則秋後消盡無可採. 又陸璣曰 莖如匕柄 葉可生食 而堤則莖細如繩 葉亦無食者. 又張翰所憶者羹也 而堤則水煮作冷淘 而無足爲羹. 又諸書並言圓者爲蓴 長者爲苽 而苽則詩諺解所釋 本自多誤 非可据信 而廣考毛傳及本艸等 苽亦萍類 似今所謂개넌者 而개넌與堤蓴 亦已遠矣. 且況堤產之所異者 初生莖葉 有凝如水晶者衣之 水煮之後 玲瓏不變者也 而考之古書 一無概見. 惟陸璣所言 著手中滑 不得停者 雖近之 然猶不當如是略殺. 故今方註詩之物名 而泮水茆字之下姑闕以俟 伏望考示”. 번역은 김덕수, 앞의 글(2021)에 따름. 밑줄은 인용자.

문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荇’과 ‘개연[개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중요한 점은 1810년 4월 22일, 이 편지를 보낼 때 유희가 『시물명고』를 저술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작업을 진행하던 부분은 「반수(泮水)」의 ‘荇(표)」 부분이다. 「반수」는 『시경』 「노송(魯頌)」 편에 속한 노래로서 『시물명고』 주석 작업을 거의 다 마친 상태였던 것이다. 오보라에 따르면,³⁶ “유희가 윤광안과 물명을 토론한 편지는 1810~1811년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시물명고』 역시 1811년을 전후하여 편찬되었으리라 추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물명고』 역시 물명을 다루는 만큼 (기존에 물명서로 널리 알려진) 『물명고』와 어떠한 관계(선후 및 영향 관계)인지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물명고』와 선후 관계를 논하고자 할 때 『물명고』의 편찬 시기가 불분명한 점이 그동안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유희가 단양(丹陽) 협중(峽中)에 우거하던 11년간(1809~1819)이 저술하기에 적당했을 시기로 짐작되기도 하고,³⁷ 유희가 『언문지(諺文志)』(1824)를 엮을 무렵 1820년대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³⁸ 그러나 ‘짐작’이나 ‘추정’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해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오보라³⁹에 와서 『물명고』 외에 물명과 관련된 유희의 다른 저술들이 폭넓게 검토되고 이에 따라 이들과 『물명고』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36 오보라, 앞의 글(2019), 262쪽.

37 김민수, 「柳僖 선생의 生涯와 學問」, 『어문연구』 28-4(2000), 253쪽

38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2013), 170쪽; 심경호, 「柳僖 『物名考』의 注文과 按語에 대한 일 고찰」,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2014년도 제3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2014), 42쪽.

39 오보라, 앞의 글(2019), 262~264쪽.

『시물명고』, 『유록』, 『물명고』는 각각 독립된 저술이지만 내용 면에서 관련성이 있다. 이 3종의 저술 중 가장 먼저 기술된 것은 『시물명고』라고 생각된다. [...] 『유록』은 『시물명고』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유록』 중에서도 〈만물류〉는 〈서자류〉·〈의약류〉보다 나중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의약류〉에 1821년과 1822년의 일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의약류〉는 1822년 이후에 저술되었고, 〈만물류〉 역시 1822년 이후에 저술되었을 것이다. [...] 유희는 1811년 무렵부터 약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 각 저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서술들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저술들을 통해 집적된 물명 고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물명고』이다.⁴⁰

인용문에서 언급된 각각의 저술 시기는 반증 가능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단순한 짐작 이상으로 설득력을 갖춘 것이다. 황문환의 연구⁴¹에서 『물명고』의 편찬 시기를 ‘1822~1825년 사이’로 좁힐 수 있는 점도 논증되었으므로 『시물명고』와 『물명고』의 선후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물명고』의 성격을 “(이전의) 저술들을 통해 집적된 물명 고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홍윤표⁴²가 지적한 것처럼 “『시물명고』가 『물명고』를 편찬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또한 그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향 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위의 글, 262~264쪽.

41 황문환, 『『物名考』 해제』, 황문환 외, 『물명고 역해』(서울: 역락, 2023), 360쪽.

42 홍윤표, 앞의 글(2000b), 57쪽.

VI. 『시물명고』의 저술 성격

『시물명고』와 『물명고』는 ‘물명고’라는 명칭이 공통되지만 저술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물명고』는 『재물보(才物譜)』를 ‘대본’⁴³으로 그것의 일부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정리, 편찬”⁴⁴한 성격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물명고』에서는 ‘纂’으로⁴⁵ 표현한 바 있는데 이 ‘纂’은 “모아서 編纂하다”의 뜻으로 ‘著’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물명고』와 비교할 때 『시물명고』는 따로 ‘대본’에 해당하는 문헌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纂’의 성격도 지니지 않는다. 한마디로 『시물명고』는 『물명고』에 비해 독자적 저술성이 두드러진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희 자신도 의식하여 [그림6]에서 보듯이 두 문헌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구별한 바 있다. [그림5]는 『文通』 권1의 외표지이다. 『文通』 권1은 『춘추』 관련 저술들을 한데 모은 책⁴⁶인데 유희는 이 책의 앞표지 裏面に [그림6]과 같이 ‘文通目錄’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뒤 자신이 집필한 서명을 모두 나열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가치와 중요성을 직접 밝혔다. 크게 보아

43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건』, 『새국어생활』 10-3(2000), 49쪽.

44 홍윤표, 『物名攷』,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551~552쪽.

45 『물명고』의 여러 이본에 卷首題가 ‘方便子纂物名考’로 나온다. 황문환, 앞의 글(2023), 362~363쪽.

46 『春秋括例分類』, 『春秋大旨』, 『春秋經文考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 표지에는 ‘文通’이라 적힌 제첩이 붙어 있고 제첩 아래에는 ‘卷之一’이라고 권차를 적었다. 제첩 우측에 ‘已抄’라 적힌 첩지가 붙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淨寫를 이미 마쳤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표지 전면에 걸쳐 이 책에 수록된 『춘추』 관련 저술의 서명을 일일이 적어 두었다. 이 책은 유희의 친필본이 분명한데 “가치런히 재단되지 않은 종이를 사용한 점, 책의 형태가 정사 각형에 가까운 점, 먹을 사용하여 도말하거나 글자를 수정한 부분이 다수인 점, 첩지를 붙여 내용을 대폭 수정 및 추가하거나 권차를 밝힌 곳이 많은 점, 서파 특유의 서체로 씌어 있는 점”[김덕수, 앞의 글(2021)] 등을 서파 친필 교정본의 근거로 꼽을 수 있다.



그림5-『문통』 권1 외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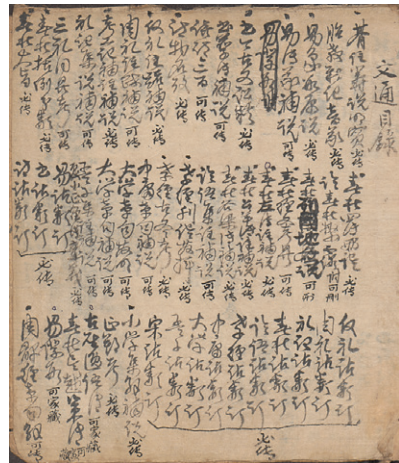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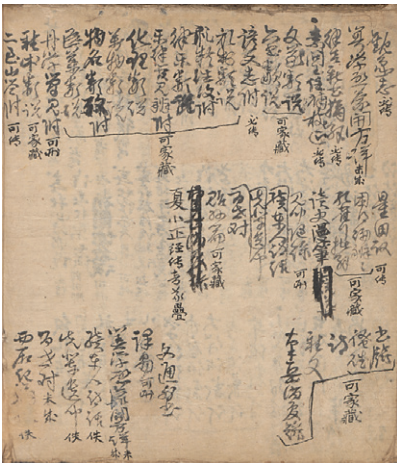


그림6-『문통』 권1의 앞표지 裏面に 적힌 ‘文通目錄’

‘반드시 전할 것[必傳]’, ‘전할 만한 것[可傳]’, ‘집에 소장할 만한 것[可家藏]’, ‘산삭할 만한 것[可刪]’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유희가 생각하는 완성도 및 학술적 효용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 『시물명고』(목록상의 서명은 『詩物名攷』)는 반드시 후세에 전할 ‘必傳’으로 평가된 반면

『물명고』(목록상의 서명은 『物名類攷』)는 (여타 유서류와 함께) 집안에 소장할 만한 정도의 ‘가가장(家可藏)’으로 평가되는 데 그쳤다. 유희의 대표적 저술로 일컬어지는 『언문지』(1824) 역시 ‘필전(必傳)’으로 평가된 것을 보면 『시물명고』는 『언문지』와 같은 반열에 놓일 만큼 (유희 자신의) 독자적 저술성이 분명했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시물명고』의 독자적 저술성은 동시대의 저술과 비교할 때 ‘상대적 차별성’으로 또한 확인된다. 『시경』의 물명을 다룬 책으로는 기존에 정학유(丁學游, 1786~1855)의 『시명다식(詩名多識)』(1805년경)이 알려져 있다. 이 책 역시 “『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의 이름을 고증하여 해설한 것”⁴⁷이지만 이 책은 『시경』의 물명을 일단 ‘識草’, ‘識穀’, ‘識木’, ‘識菜’, ‘識鳥’, ‘識獸’, ‘識蟲’, ‘識魚’의 8개 부류로 분류한 뒤 (『시경』의 편차에 따라) 표제 물명을 순차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체재를 취하고 있다. 『시경언해』의 ‘언석’에 초점을 맞추어 『시경언해』의 편차를 그대로 준용한 『시물명고』와는 저술 체제가 판이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언석’의 유무와 직결되고 있다. 『시물명고』에서는 『시경언해』에 등장하는 언석(물론 표기상 차이는 있다)을 포함하여 무려 617개(중복을 제외하면 550개)에 해당하는 언석이 등장한다. 『물명고』에 등장하는 한글 물명의 수가 총 1,699개인 점을 감안하면 책의 분량이 『물명고』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언석’이 수록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IV장 참조). 그러나 『시물명고』와 달리 『시명다식』에서는 ‘언석’이 등장하는 예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고증을 위해 옛 문헌의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점에서는 두 문헌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언석’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두 문헌은 판이할 정도로 차이를 보

47 정학유(지), 허경진·김형태(역), 『詩名多識』(파주: 한길사, 2007), 651쪽.

이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문헌이면서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두 문헌의 지향점이 다른 데서 빚어진 결과이겠지만 ‘언석’의 중요성과 관련한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⁸

VII. 맺는말

『시물명고』는 유희의 『문통』 가운데 저술 목적과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헌에 속한다. 『물명고』와 비교할 때 독자적 저술성이 두드러져 유희 스스로도 ‘후세에 반드시 전해야 할 책[必傳]’으로 자평한 문헌이기도

48 『시명다식』과 비교할 때 『시물명고』에서 문헌 사실을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비추어 실제로 ‘징험’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점도 주요한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앞서 V장에서 인용한 간찰(1811년 柳傳가 尹光顔에게 보낸 간찰)만 보더라도 ‘蓴(순; 순채)’에 대한 기존의 문헌 사실을 자신이 제천 의림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와 일일이 대조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시물명고』의 「반수(泮水)」 편 「茆(묘)」의 기술에 충실히 정리,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蓴【순. 嘗疑東俗之蓴 恐非眞蓴. 近日親往堤川 目驗其詳, 果蓴 非贗也. 堤蓴之凝裹水精者 乃陸璣所謂著手中滑不得停也. 其作冷淘而食者 乃所云未下鹽豉之羹也. 其子之如棠梨 中有細子者 其葉之如馬蹄而赤者 自夏至冬 萌蘖不息者 並與《本草》諸說相符. 但堤產葉形 兩頭尖長 則是苻無疑 更未知東土亦有不尖之一種歟 當更考驗.】〈23a〉]. 이처럼 문헌 기록을 ‘징험’하는 데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중시한 태도는 『시물명고』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중국에만 존재하여 이러한 ‘징험’이 어려운 물명의 경우는 반드시 그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혀 두기도 했다. 예컨대 「습유장초(濕有莢楚)」 편 「蓴楚(장초)」 항목의 경우 기술 내용 말미에 (우리말의) ‘보리수’를 중국 사람은 ‘胡蘆子(호뢰자)’라고 하는데 (‘호뢰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미처 직접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然보리수 華人謂之胡蘆子 … 未及詳驗〈12b〉] 사실을 밝혀 두었다. 또한 「채미(采薇)」 편 「魚(어)」 항목에서는, 『시경언해』의 언석 ‘반달피’를 소개하면서도 이 언석이 주해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반드시 다시 살펴 징험해야 한다[當更攷驗]는 단서를 달아 두었다[魚【魚 東海獸似猪 背皮斑文. 以爲器服 經年之後 海潮及天雨 其毛皆起. 舊釋謂之반달피 未知반달피之果如是與否 當更攷驗.】〈15b〉].

하다. 동시대의 다른 문헌(예: 정학유의 『시명다식』)과 비교해도 ‘언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점에서 ‘상대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문헌이었다. 이러한 저술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물명고』는 그동안 『물명고』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 글에서는 『시물명고』의 서지를 비롯하여 저술 목적과 체재, 저술 시기와 성격 등을 구명하여 『시물명고』의 향후 연구 및 활용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밝혀진 여러 내용이 앞으로 『시물명고』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심화,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1. 1차 자료

『物名考』(영인본), 서울: 조선학회, 1960~1961.

『物名考·物譜』(영인본), 서울: 경문사, 1975.

2. 논저

김덕수, 「문통의 계통 연구: 구록과 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7-3, 2014 258~296쪽.

김덕수, 『『시물명고』의 저술과 『시물명고』에 대한 서파의 언급』,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년도 원내 공동연구과제 결과보고회 발표 요지, 2021.

김민수, 「柳僖 선생의 生涯와 學問」, 『어문연구』 28-4, 2000, 246~261쪽.

김연순, 「西陂 柳僖의 『聞見隨錄』 譯注」,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류재중, 「류희 『문통』의 여정」, 『晉州柳氏詩文資料集(西陂 柳僖 家門의 詩文集) 7』, 진주 류씨대중회(목천공종회), 2023, 662~728쪽.

박꽃새미·황문환, 「『물명고』의 이본과 상호 관계」, 『한국학』 47-1, 2024, 7~48쪽.

심경호, 「柳僖 『物名考』의 注文과 按語에 대한 일 고찰」,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2014년도 제3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2014, 33~52쪽.

오보라, 「西陂 柳僖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오보라, 「西陂 柳僖 『物名考』의 체계 및 의의 제탐색」, 『대동한문학』 58, 2019, 245~287쪽.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견」, 『새국어생활』 10-3, 2000, 43~62쪽.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 연구』 18, 2014, 79~115쪽.

정양수, 「내가 아는 柳 僖와 그 關聯資料考」, 『어문연구』 28-4, 2000, 305~320쪽.

정양완, 「유희의 학문과 생애」, 『새국어생활』 10-3, 2000, 5~26쪽.

정인보, 「文通 解題」, 『舊園國學散藁』, 서울: 문교사, 1955.

정학유(저), 허경진·김형태(역), 『詩名多識』, 과주: 한길사, 2007.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 한국학중앙연구원(편), 『晋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홍윤표, 「物名攷」,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어문연구』 28-4, 2000a, 277~304쪽.
- 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b, 43~74쪽.
-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2013, 167~211쪽.
- 황문환, 「『物名考』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편), 『晋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0~12쪽.
- 황문환, 「柳僖의 『才物譜』 비관을 통해 본 『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柳僖가 李晩永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2016, 79~113쪽.
- 황문환·김정민, 「『才物譜』의 이본 계열과 선후 관계」, 『국어사 연구』 35, 2022, 175~212쪽.
- 황문환, 「『物名考』 해제」,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 서울: 역락, 2023, 339~371쪽.

국문 초록

『詩物名考』는 유희의 『文通』 가운데 저술 목적과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헌에 속한다. 『物名考』와 비교할 때 독자적 저술성이 두드러져 유희 스스로도 ‘후세에 반드시 전해야 할 책[必傳]’으로 자평한 문헌이기도 하다. 동시대의 다른 문헌(예: 丁學游의 『詩名多識』)과 비교해도 ‘언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점에서 ‘상대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문헌이었다. 이러한 저술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물명고』는 그동안 『물명고』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 글에서는 『시물명고』의 서지를 비롯하여 저술 목적과 체제, 저술 시기와 성격 등을 구명하여 『시물명고』의 향후 연구 및 활용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밝혀진 여러 내용이 앞으로 『시물명고』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심화, 확장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5. 10. 10.

심사일 2025. 11. 6.

게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물명(names of things), 『물명고』(*Mulmyeonggo*), 『시경』(*Book of Odes*), 『시경언해』(*Vernacular Translation of Book of Odes*), 『시물명고』(*Simulmyeonggo*), 유희(Ryu Hee)

Abstract

The *Simulmyeonggo* by Ryu Hee in Jangseogak

Hwang, Munhwan

Among the works included in the anthology *Muntong* (文通) by Ryu Hee (柳僖), *Simulmyeonggo* (詩物名考) is one whose purpose and period of composition are relatively clear. Compared to *Mulmyeonggo* (物名考), the work stands out for its uniqueness, and Ryu Hee himself praised it as a “book that must be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Compared to other works from a similar period [e.g., *Simyeong Dasik* (詩名多識) by Jeong Hagyu (丁學游)], *Simulmyeonggo* is notable for its “relative difference” in that its discussion centers on “vernacular translated names of things.” Despite the book’s literary value, *Simulmyeonggo* has largely been overshadowed by *Mulmyeonggo*, and has thus lacked proper attention. This study clarifies *Simulmyeonggo*’s bibliography, purpose, format, period, and uniqueness, there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and applications. The hope is that the various findings revealed herei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deepen and expand research on *Simulmyeonggo* in various fields.